

신용문제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김인수 (KAIST)*
이택구 (대전광역시)**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실패 이후, 재창업을 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패 경험, 재창업 동기, 정부지원사업경험과 재창업교육 등이 재창업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상기 4가지 요인들이 채무/신용문제에 따라 재창업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패경험은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게 나타난 반면, 재창업동기와 정부지원사업경험 그리고 재창업교육은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신용문제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상기 4가지 요인들 모두 신용문제의 유무에 따라 재창업기업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신용문제가 없는 재창업 그룹에서 재창업동기와 실패경험이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신용문제가 있는 재창업 그룹에서는 정부지원사업경험과 재창업교육 참여가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첫째, 신용문제 유무에 따라 재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패 및 재창업 관한 연구 뿐 아니라, 재창업 정책 개발을 함에 있어 신용문제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며, 둘째, 실패경험이 재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이 없게 나온 것은 폐업 후 재창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평균 56개월, 단, 경우에 따라 2년~ 7년 이상이 소요)이 실패경험이 자산화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정 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 향후, 실패경험과 재창업에 대한 직/간접 영향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진부화라는 개념에서 실패 이후 재창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 실패경험, 재창업, 기업성과, 기업가정신, 신용문제, 회귀분석

I. 서론

최근 창업과 실패에 대한 학술적 관심 뿐 아니라,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는 창업에 실패한 기업가들의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창업 지원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재창업지원정책

년도	정책 및 제도	주요내용
2009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재창업 자금 신설, 중진공 정책자금 연대보증 부담 경감
2010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지원자금)	재창업지원자금 (용자) 첫 시행
2013.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	실패기업인 재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제도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추진 근거 확보
2013.5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재기기업인 정책자금 확대, 연대보증 폐지 확대 (제2금융권까지), 재창업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2013.10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 (실패부담완화, 실패최소화, 재창업성공률 제고)
2015.10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신복위 재창업지원으로 조정 개편
201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재창업지원계획 수립, 성실경영평가제도 도입 등의 근거
2017.4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자금 지원 생태계 정착을 위한 5대 전략, 15대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 등 제시
2017.11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금융을 기관 연대보증 전면폐지, 재산압류, 신용정보, 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

실제로 낮은 창업 생존율<표 2>은 창업 숫자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패 원인과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실패 사례가 아닌,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실패율을 줄이기보다는 창업의 수를 늘리는 정책과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패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실패를 경험 한 사람조차도 실패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실패한 기업과 기업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McGrath 1999, Shepherd, et al., 2009, Gabrielson & Politis 2011). 이러한 것들이 실패 관련 연구가 창업 관련 연구에 비하여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저자, 김인수,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연구교수, kiminsue@kaist.ac.kr
** 교신저자, 이택구,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taekkulee@korea.kr
· 투고일: 2018-2-23 · 수정일: 2018-4-24 · 게재확정일: 2018-04-30

<표 2> 창업이후 생존율 비교

생존 년도	미국 생존율 (2004-2015)	한국 생존율 (2004-2014)	EU 생존율 (2009 ~2014)
1	79.6	70.4	80.0
3	60.6	43.0	54.6
5	49.6	30.4	44.0
10	33.6	16.4	-

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_ https://www.bls.gov/bdm/entrepreneurship/bdm_chart3.htm
 2) South Korea SMBA Statistics _ <http://sminfo.smba.go.kr/>
 3) EUROSTAT_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Business_demography_statistics

우리나라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창업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고, 정부의 직접 창업지원을 높이고 있다. 즉, 창업자금 지급 확대, 창업실무교육 강화, 정책지표 반영, 신설법인 혜택 및 청년 창업에 대한 홍보 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직접 창업 지원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안전망에 대한 학습이 없다면, 상기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될 수 있다. 창업의 롤 모델 (role model)적인 미국은 다수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성공적인 재창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창업 및 실패,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막혀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공 뿐 아니라, 실패 역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재창업기업인을 대상으로 재창업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실제 재창업지원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창업 시 신용문제의 유무에 따라 재창업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국내외 최초의 연구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업 실패 후, 재창업을 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통계자료와 특성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실패 및 재창업과 관련된 후속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창업-실패-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에서 실패 경험, 재창업 동기, 정부지원사업 그리고, 재창업교육 등이 재창업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둘째, 상기 4가지 요인들이 재창업기업가의 채무 및 신용문제에 따라 재창업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지원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장에서는 서론과 함께 3가지의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실패경험, 재창업 동기, 정부지원 그리고, 재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와 변수를 포함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 및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과 가설

2.1 신용문제와 재창업기업 성과

2013년 중소기업 실패 및 재창업 실태조사 (2013년 12월)에 따르면, 재창업 애로사항으로 ‘재창업자금 마련’이 52.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신용문제 회복(신용등급 회복, 금융거래 제한 완화)’(38.8%), ‘거래처 및 판로확보’(4.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창업자금 마련과 신용문제 회복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신용문제 하나로 귀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창업가는 연대보증과 신용불량 등의 문제에 빠져 헤어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며, 폐업 후, 신용 문제를 극복하고 재창업을 하는데,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할 경우, 약 8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경우 약 2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파산면책 (약 8년)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약 2년) 등 신용회복 제도상 기간 이외에, 실패 후 스트레스 회복 기간(<표 3> 참조, 폐업기간 포함, 부채규모에 따라 다르며, 평균 36개월 소요)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패(폐업)를 하였어도, 채무와 신용 문제를 모두 해소한 후 재창업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은 일반 벤처창업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창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만이 소요된다. 채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신용문제 없이 재창업을 하는 것은 신용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재창업을 하는 기업인과는 출발선이 다르게 된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용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재창업을 한 경우와 신용문제를 모두 해소한 후 재창업을 한 경우, 향후 재창업기업 성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재창업기업성과를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과 동시에 신용문제를 고려하려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창업기업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잠재적 요인들 중 정부지원, 재창업 동기, 실패경험 및 재창업 교육 등 4가지의 요인에 대한 재창업기업 성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정된 4개의 가설을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으로 구분하여 재창업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기 위하여 하위 가설 (가설1-1, 가설2-1, 가설3-1, 가설4-1)을 설정하였다.

2.2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기업 성과

기업가는 과거 창업 및 비즈니스 경험을 통하여 기업의 자원 및 자본에 대한 재설계 능력을 학습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학습된 경험은 사업 기회를 더 빨리 발견하고,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활용된다(Cope 2005, West & Noel, 2009; Ucbasaran et al., 2010; 배영임, 2014). 또한, 기업가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Choo &

Trontman, 1991; Dew et al., 2009). 이러한 경험은 향후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줄여 비즈니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Dimov, 2010). 결과적으로 이전의 기업 경험은 창업자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Stuart & Abetti, 1990; Ucbasaran et al., 2003; Hmieleski & Baron, 2009).

한편,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실수로부터도 배울 수 있으며, 실패의 학습 경험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시장 진입 전략을 수정할 수 있으며(King & Tucci, 2002), 기업은 이러한 실패 경험을 통하여 벤처 기업은 실패에 대처하는 교훈을 학습하고, 재창업을 위한 동기부여 뿐 아니라, 생존율과 기업성공과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Stokes & Blackburn, 2002, Delmar & Shane, 2004)고 주장하는 한편, 실패 경험은 과거 성공한 기업가들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기업가정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Cope, et al., 2008; Gino & Pisano, 2011).

반면, 일부에서는 다수의 창업 경험은 단조로움의 부작용을 낳아 혁신을 방해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Starr & Bygrave, 1991)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성공 경험은 지나친 자기 과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 과신은 학습동기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Madsen & Desai, 2010, 하규수, 2010)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 신용문제와 재창업기업 성과와 2.2 사업 실패 경험과 재창업기업 성과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증적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사업 실패 경험은 재창업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사업 실패 경험은 재창업 기업인의 신용 문제 유무에 따라 재창업 기업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재창업 동기와 재창업기업 성과

오랫동안 창업 동기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Begley & Boyd, 1987). 창업 동기는 개인 및 환경에 따라 기업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은 위험 선호도, 성취 욕구, 자기 효능감 및 자율 욕구가 있다고 말한다(Sexton & Bowman, 1985; Krueger & Brazeal, 1994). 그러나 기업가의 개인특성 요소에 의해서만 기업 프로세스를 설명 할 수는 없다. 환경의 상호 작용 또한 기업가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Greenberger & Sexton, 1988),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정부 정책, 사회 경제적 조건, 기업 경영 기술, 재정 지원 및 비재무 지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Gnyawali & Fogel, 1994). 한편,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기 효능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업 문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기업가는 지속성, 집중력 및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행동을 보인다(Wood, et al., 1990; Yu & Chen, 2016).

창업동기와 관련된 기존 연구 중 실패경험은 기업가에게 극복할 있는 학습 능력을 주고, 이러한 실패경험은 자산이 되어, 기업가는 이를 기반으로 창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Stokes & Blackburn, 2002; Politis & Gabrielsson, 2009)는 사업 실패 경험이 기업가들에게 창업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했고,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실패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패 비용 (사회적 비용 및 심리적 비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tokes & Blackburn, 2002; Shepherd,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 신용문제와 재창업기업 성과와 2.3 재창업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실패 후 재창업의 동기 부여가 재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2: 도전적인 재창업 동기는 재창업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재창업 동기는 재창업 기업인의 신용 문제 유무에 따라 재창업 기업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과 재창업기업 성과

실패 후, 재창업을 하는 기업의 내부자원 및 외부자원을 고려할 경우, 신생기업과 동일하거나, 채무 및 신용문제로 인하여 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창업기업에 대한 상태를 초기성장단계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 생존 이론에 따르면 업력이 낮을수록 성장률은 높지만 생존 확률은 낮다(Audretsch & Mahmood, 1995). 따라서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신생 기업은 성장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내부자원 또는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정부 지원에 의존 할 가능성이 크다. Barney(2012)는 자원 기반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성장을 위한 내부 자원이 부족한 경우 정부 프로그램과 같은 외부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Kim et al., 2015). 기업가가 창업 경험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투자를 포함하여 마케팅, 유통, 판매 등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사업 경험 및 역량,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기업은 정부 자금(Grilli & Murtinu, 2015, Rojas & Huergo, 2016)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기업 성장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봉(2017)은 그의 연구에서 정부지원제도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성장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이나, 컨설팅 등 지원 정책을 통한 지원도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정부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기업 성과(Callejon & Garcia-Quevedo, 2005, Gonzalez, et al., 2005, 이병권·전인오, 201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대하여, 일부 연구자는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활동의 결과에 회의적이라는 주장도 있다(Wallsten, 2000; Catozzella & Vivarelli.,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 신용문제와 재창업기업 성과와 2.4 정부지원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실패 후 재창업에 있어 정부지원이 재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3: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은 재창업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재창업기업 성과는 재창업 기업인의 신용 문제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재창업 교육을 통한 학습

사업의 성공 여부는 기업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즉, 창업에 필요한 많은 역량들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높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업의 의지 또는 기업가적 능력은 본능보다는 기업이 정신 교육을 통해 습득 될 수 있다고 보며(Mcmullan & Vesper, 1987), 교육은 기계 학습 접근법보다는 실전 경험을 중시하는 현장학습을 통해 수행되어야한다(Ronstadt, 1988)고 말하고 있다.

한편, 기업가들은 실패의 원인을 검토하고 학습함으로써 같은 실패를 반복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Gabrielsson & Politis 2011). 즉, 실패를 유발하는 위험을 발견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한다.

Shepherd(2004)는 재창업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가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Politis & Gabrielsson(2009)는 창업자들은 실패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이 필요하고, 기업인들은 이를 학습함으로써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 신용문제와 재창업기업 성과와 2.5 재창업 교육을 통한 학습에 관한 기존 연구를 기초로 실패 후 재창업을 함에 있어 재창업 교육이 재창업기업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4: 재창업 교육 경험은 재창업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재창업 교육 경험은 재창업 기업인의 신용 문제의 유무에 따라 재창업 기업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재창업자의 실패경험, 재창업 동기, 정부지원경험, 재창업교육 참여가 재창업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고, 상기 4가지의 요인을 다시 세부적으로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와 신용문제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재창업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상기 가설에 대한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업 실패 경험은 재창업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사업 실패 경험은 재창업 기업인의 신용 문제 유무에 따라 재창업 기업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도전적인 재창업 동기는 재창업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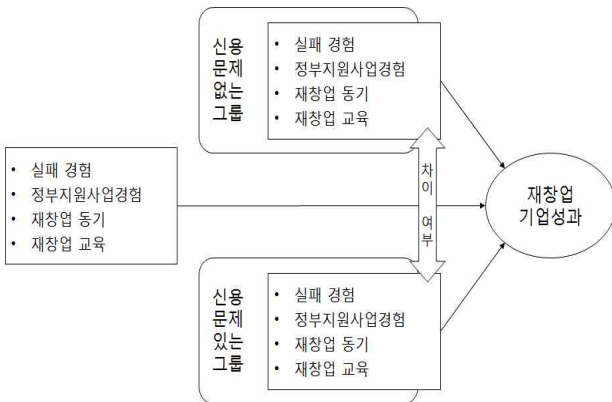
가설2-1: 재창업 동기는 재창업 기업인의 신용 문제 유무에 따라 재창업 기업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은 재창업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재창업기업 성과는 재창업 기업인의 신용 문제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재창업 교육 경험은 재창업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재창업 교육 경험은 재창업 기업인의 신용 문제의 유무에 따라 재창업 기업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3.2 자료의 수집과 표본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 1회 이상 실패(폐업)를 한 기업인 중에서 저신용자 및 신용불량자로서 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 기업 중 정부의 재창업지원자금(평균 지원 자금(융자)는 183,740천원)을 받은 685개 기업(‘10~14년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25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방법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방문거절 시, 전화와 e-mail과 FAX를 병행 실시하였다. 총 대상기업 685개 기업 중, 조사 거절, 결번, 부재 업체는 67개 기업으로 최종 618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여, 설문회수율은 90.2%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주요변수의 결측치와 이상치가 있는 설문지는 제외하여, 본 연구에는 총 384개의 재창업기업의 설문결과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특성 주요 지표는 <표 3>와 같다.

<표 3> 재창업 기업 데이터의 특성

변수	갯수	최소	최대	평균	기타
업력 (년)	387	-	-	4	
재창업년도					
2006	10	2	-	-	
2007	9	3	-	-	
2008	8	9	-	-	
2009	7	17	-	-	
2010	6	38	-	-	
2011	5	57	-	-	
2012	4	95	-	-	
2013	3	95	-	-	
2014	2	71	-	-	
재창업 지원 금액	-	-	-	-	
2010년	15	-	-	192,400	단위: 천원
2011년	75	-	-	219,613	융자
2012년	96	-	-	242,718	3년 거치
2013년	211	-	-	205,455	3년
2014년	288	-	-	138,378	분할 상환
전체	685	-	-	183,740	
폐업 횟수	387	1	8	2.2	회
근무경험 (폐업 전)	350	1	30	8.10	단위: 년
산업 업종	384				6개 업종 구분
제조	258				

건설	7								
도소매	44								
정보통신	44								
과학기술	27								
기타 서비스	4								
신용 문제 여부	384								재창업 전 신용 문제 여부 확인
신용문제 있음	138								
신용문제 없음	246								
재창업 기업 매출액 (천원)	387	0	7,788,666	624,758					로그 변환 후 분석
폐업 후 스트레스 회복 기간	387	1	240	36.22					단위(개월)
재창업 준비 기간	387	1	140	19.55					단위(개월)
폐업 당시 부채 구성	387	-	-	-					
국세	126	-	-	-					
대출/융자 (은행 및 정부)	137	-	-	-					
사채 및 기타	124	-	-	-					
채무 해결 방법	362	-	-	-					
파산 및 면책	87 (24%)	-	-	-					
개인워크아웃	82 (24%)	-	-	-					
청산	25 (6%)	-	-	-					
개인 스스로 해결	168(46%)	-	-	-					

3.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재창업자의 실패경험, 재창업동기, 정부의 재창업지원, 재창업 교육의 참여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재창업기업의 성과로 하였다. 또한 파인분할 분석을 위하여 신용문제의 유무를 구분하였으며, 기업업력과 산업업종을 통제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인 재창업자의 ‘실패(창업) 경험’은 재창업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재창업자의 폐업 횟수로 측정하였다. ‘재창업 동기’는 과거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재창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1, 과거 실패로 인하여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급하게 재창업을 한 경우를 0으로 표기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재창업교육 경험’도 과거 실패 이후 재창업 교육에 참여한 경우 1, 재창업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으로 표기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정부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점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통제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업력’과 함께 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업종을 사용하였다. 업력은 재창업기업 운영 기간을 적용하였으며, ‘산업업종’을 사용하였고, 산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의 대분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제조업은 1, 건설은 2, 도소매는 3, 정보통신은 4, 과학기술은 5, 기타 서비스는 6으로 하여 6개의 산업업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수 사용되는 종업원 수는 재창업기업에서는 종업원 수가 매우 적어, 의미가 없기에 사용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재창업기업의 성과’는 재창업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출하여 측정하였으며,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켜 회귀분석이 가능하도록 로그변환하여 처리하였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발주한 용역과제 ‘2015년 재창업자금 지원성과 분석’(2015.7)의 결과물로 수탁 기관인 NICE 정보통신이 조사하였다.

한편, 채무해결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파산면책을 통한 채무해결, 둘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해결, 셋째, 청산을 통한 채무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해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파산면책을 통한 채무해결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해결은 일정기간 신용에 문제(신용불량 및 저신용(6등급이하) 등)를 발생하게 되는데 반면, 청산 및 사적해결은 신용문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용문제에 대한 그룹 분석을 위하여, 폐업 후, 재창업을 하기 전, 신용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1, 신용에 문제가 없었던 경우 0으로 표기하여 신용문제 여부를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상기 4개의 독립변수와 재창업기업 성과 영향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인 SPSS 18.0의 케이스분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는 <표 4>과 <표 5>와 같다.

<표 4> 상관분석

	Mean	SD	1	2	3	4	5	6	7
평균 매출	10.14	4.99	1						
업력	3.03	1.63	.376***	1					
산업 업종	-	-	-.028	.094+	1				
정부 지원	0.52	0.49	.159**	.028	-.006	1			
재창업 동기	0.47	0.49	.166***	.011	-.067	-.269***	1		
폐업 경험	2.24	0.65	-.005	-.019	-.028	.128**	.128**	1	
재창업 교육	0.75	0.43	.119**	-.015	-.051	-.061	.009	-.133**	1

N: 384 (단, 신용등급 N: 335)
 Note :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 신용문제 케이스 분할에 따른 상관분석

	Mean	SD	1	2	3	4	5	6	7
A	평균 매출	9.76	5.20	1					
	업력	3.02	1.60	.316***	1				
	산업 업종	-	-	-.161	.070	1			
	정부 지원	0.46	0.50	.287**	.042	-.070	1		
	재창업 동기	0.44	0.49	.057	-.058	-.040	-.212**	1	
	폐업 경험	2.31	0.81	.167**	.168**	-.083	.215**	.173**	1
	재창업 교육	0.67	0.47	.153+	.068	-.031	-.128	-.211**	-.265**
B	평균 매출	10.05	5.02	1					
	업력	3.00	1.65	.411***	1				
	산업 업종	-	-	-.063	.108+	1			
	정부 지원	0.59	0.49	.075	.020	.043	1		
	재창업 동기	0.43	0.50	.229***	.047	-.080	-.299***	1	
	폐업 경험	2.20	0.571	-.151**	-.171**	.008	.076	.102	1
	재창업 교육	0.79	0.403	.085	-.068	-.092	-.040	.145**	.014

* 참고 : A 신용문제 있는 그룹 ; B 신용문제 없는 그룹
 (모델 A) N: 138
 (모델 B) N: 246
 Note : + p<0.1, * p<0.05, ** p<0.01, *** p<0.001

IV. 실증분석 결과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룹 분할을 통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1에서는 통제변수의 효과를 분석한 후,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와 4개의 독립변수인 정부 지원, 재창업동기, 폐업 (창업)경험과 재창업교육경험을 투입하여 재창업기업 성과에 대한 가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용 문제 유무에 따른 그룹분할을 통하여 신용문제에 따른 상기 4개의 독립변수와 재창업기업 성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4.1 재창업기업 성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설1, 가설2, 가설3 그리고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경험, 재창업동기, 폐업 (창업)경험과 재창업교육경험을 독립변수로하고, 재창업기업성과 (매출액 로그변환)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지원경험과 기업성과, 재창업동기와 기업성과, 실패경험과 기업성과 그리고 재창업교육과 기업성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표 6>에 보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경험과 재창업 동기 그리고 재창업교육은 각각 유의수준 0.011과 0.009 그리고, 0.007 수준에서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패 경험이 재창업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3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1, 가설 2, 가설 4는 지지되었지만,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즉,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재창업을 하는 경우, 정부 지원 및 재창업교육은 재창업 이후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패 이후, 재창업 동기 역시 재창업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과거 기업 실패 경험은 재창업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재창업기업 성과 결정요인

모형	Model 1		Model 2	
	B	유의수준	B	유의수준
(상수)	7.053	.000	4.896	.000
업력	1.163	.000	1.149	.000
산업 업종	-.224	.178	-.169	.298
정부 지원 경험			1.236	.011
재창업 동기			1.262	.009
실패 경험			-.113	.753
재창업 교육			1.463	.007

(M1) Modified R²=0.141, df1=2, df2=381, F=22.838, p=0.000
 (M2) Modified R²=0.186, ΔR²=0.054 df1=4, df2=377, F=11.796, p=0.000

4.2. 신용문제 그룹 구분을 통한 재창업기업 성과에 대한 회귀 분석

한편, 가설1-1, 가설2-1, 가설3-1 그리고 가설4-1은 정부지원, 재창업동기, 폐업(창업)경험과 재창업교육경험의 독립변수들이 재창업 전 신용문제 유무에 따라 재창업 이후 재창업기업 성과(매출액 로그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신용문제 유무에 따라 2개의 모형(A-B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A모형은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으로 구분하여 4개의 독립변수와 재창업기업성과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B 모형은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으로 4개의 독립변수와 재창업기업성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4.2.1.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

<표 7>은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의 경우, 정부지원경험과 재창업교육에서 각각 유의수준 0.001과 0.012 수준에서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문제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재창업동기가 신용문제를 고려한 분석(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에서는 재창업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실패경험 역시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에서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 7> (모형 A) 신용문제 있는 그룹

A 모형 (신용에 문제가 있는 그룹)				
	모형 1		모형 2	
	B	유의수준	B	유의수준
(상수)	7.870	.000	3.694	.033
업력	1.068	.000	.936	.000
산업 업종	-.645	.023	-.560	.039
정부 지원 경험			2.716	.001
재창업 동기			.397	.634
실패 경험			.618	.241
재창업 교육			2.272	.012
(M1) Modified R2=0.121 df1=2, df2=135, F=10.397, p=0.000				
(M2) Modified R2=0.207, ΔR2 =0.108 df1=4, df2=131, F=6.952, p=0.001				

4.2.2.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

<표 8>은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의 경우, 재창업동기에서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다른 조건에서는 재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던 폐업 경험이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에서는 0.060 수준에서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정부지원, 재창업교육은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에서는 재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모형 B) 신용문제 없는 그룹

B 모형 (신용에 문제가 없는 그룹)				
	모형 1		모형 2	
	B	유의수준	B	유의수준
(상수)	6.600	.000	6.905	.000
업력	1.200	.000	1.124	.000
산업 업종	.065	.751	.162	.421
정부 지원 경험			.144	.806
재창업 동기			2.031	.001
폐업 경험			-.979	.060
재창업 교육			1.079	.134
(M1) Modified R2=0.163, df1=2, df2=243, F24.812, p=0.000				
(M2) Modified R2=0.214, ΔR2 =0.064 df1=4, df2=239, F=12.141, p=0.001				

신용문제 유무를 고려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지원경험, 재창업동기, 폐업경험 그리고, 재창업교육은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에서 재창업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지원과 재창업교육의 경우,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에서는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표 7>을 주고 있지만,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이와는 반대로 재창업동기와 폐업경험의 경우,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에서는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표 7>이 없지만,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에서는 유의수준 0.01과 0.06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표 8>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창업기업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일반적 접근(신용문제를 고려하지 않음)의 결과 폐업경험과 재창업기업성과의 관계인 가설 1을 제외한, 재창업 동기(가설2), 정부지원사업경험(가설3), 재창업교육경험(가설4)은 모두 지지가 되었다.

한편, 재창업기업성과의 결정요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신용문제를 고려하여 그룹 비교를 한 결과, 신용문제의 유무에 따라 재창업기업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들은 모두 지지되었다. 즉, 폐업 경험(가설 1-1), 재창업동기(가설2-1)는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반면, 정부지원사업경험(가설3-1), 그리고, 재창업교육경험(가설4-1)은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표 8>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의 재창업 기업 성과에 대한 결정 요인

	신용문제를 구분하지 않은 분석	신용문제를 구분한 분석		비고
		신용문제 있던 그룹	신용문제 없던 그룹	
폐업 경험	x (가설1 지지)	x	o	(가설1-1 ; 지지)
재창업 동기	o (가설2 지지)	x	o	(가설2-1 ; 지지)
정부 지원 사업 경험	o (가설3 지지)	o	x	(가설3-1 ; 지지)
재창업 교육 경험	o (가설4 지지)	o	x	(가설4-1 ; 지지)

o : 유의미함 x : 유의미하지 않음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384개의 실패 이후,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재창업동기, 실패경험 및 재창업교육 참여가 재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상기 4가지 요인에 대하여 재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창업기업을 채무와 신용문제를 해결한 후, 재창업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재창업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증하였다.

재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사업경험, 재창업동기 및 재창업교육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거 실패 경험은 재창업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 및 신용문제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정부지원과 재창업동기와 재창업교육이 채무와 신용문제를 해결한 후 창업했을 때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했을 때, 재창업기업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신생 기업은 성장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내부자원 또는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Barney, 2012; Grilli & Murtinu, 2015; Rojas & Huergo, 2016)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재창업기업 역시 신생기업과 마찬가지로 초기 내부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 및 재창업교육과 같은 외부지원 및 교육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용문제를 고려한 그룹 비교 결과 <표 7> 및 <표 8>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용문제가 있는 그룹에서는 정부지원과 재창업교육이 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채무 및 신용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창업을 할 경우, 재창업기업이 기업내부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창업기업은 정부지원 및 외부교육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외부자원을 획득하고, 폭넓은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인력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반면, 실패 이후, 채무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신용문제 없이 재창업을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재창업기업 (채무 및 신용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재창업기업)에 비하여 정부지원 및 재창업 교육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실제로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에서는 정부지원과 재창업교육이 재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 및 신용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재창업한 기업은 스스로 내부 및 외부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재창업동기에서는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는 창업자와 기업 성과에 관한 행동(Wood, et al., 1990; Yu & Chen, 2016)과 실패의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한(Politis & Gabrielsson, 2009) 선행 연구와 같이 긍정적인 재창업동기는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채무와 신용문제를 고려하여 재창업동기와 재창업기업 성과를 분석할 경우, <표 7>과 <표 8>처럼 서로 다르게 영향을 보이고 있다. 신용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 재창업을 하는 경우, 재창업동기는 재창업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신용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재창업을 한 경우, 재창업동기는 재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창업을 한 경우, 재창업동기는 실패를 통한 성공의 자신감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창업자세보다는 시급한 생계문제 해결이 재창업동기로 나타나며, 이 경우 재창업기업은 다양한 채무와 신용문제와 함께 자신감 결여로 인한 재창업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패경험이 재창업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신용문제를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경우,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에서 실패 경험이 재창업기업성과에 **negative**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통한 학습효과가 성공을 통한 학습효과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Gino & Pisano, 2011)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다수의 창업경험은 단조로움의 부작용을 낳아 혁신을 방해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Starr & Bygrave, 1991)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 연구에서는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어 재창업 시 기업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실패경험이 재창업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실패 경험이 자산이 되고, 재창업기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패 이후, 경험(자산)이 진부화 되기 전에 빨리 재창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패 후, 재창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6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에서는 실패 경험이 자산이 되어, 재창업기업 성과에 기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한편, 이러한 분석은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에서 실패 경험이 재창업기업성과에 **negative**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해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 즉, 실패 후, 재창업까지 평균 소요기간 56개월 중, 처음 36개월은 폐업기간 및 스트레스 회복을 포함하는 숙려 기간이며, 이 숙려기간이 지난 후 약 19개월은 재창업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에, 신용문제가 없고, 실패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인은 숙려기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지만, 실패(폐업)이 누적됨에 따라 숙려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즉, 신용문제가 없는 그룹에서는 실패(폐업) 경험이 재창업까지 시간을 길어지게 만들게 되며, 이는 비즈니스의 진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재창업기업성과에 **negative**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는 창업 실패(폐업)가 신용문제 및 폐업기간과 연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창업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2. 시사점

본 연구는 실패 후 재창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재창업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도하였으며, 다양한 재창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의 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반면, 창업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창업과 실패는 불가분의 관계이나 실패의 경우, 창업에 쏟은 정책적 관심에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과 실패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두 번째 기회 박탈은 현재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과 실패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실패를 명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 재창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창업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은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용문제에 따라 재창업기업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있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정책적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 접근한 것도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채무 및 신용문제가 모두 해결된 재창업 기업인은 그렇지 않은 재창업 기업인보다, 적극적인 재창업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동안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가에게 자산이 되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인들의 약 50% 이상은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용문제를 해결하고, 재창업의 발판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재창업 기업인들은 성공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 보다는 생계문제와 연결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성공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재창업지원자들에게는 소액의 자금융자, 재창업교육, 재창업 멘토링 등 직접적인 정부지원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펀드 및 창업인프라 확대 또는 네트워킹 지원 등 민간을 통한 정책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채무 및 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재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인들에게는 정책자금 융자(신용문제로 민간에서는 자금을 확보 할 수 없음), 재창업교육지원, 재창업멘토링, 마케팅 지원 그리고 우수 인력지원 등 단기적이며, 직접정책지원 등이 다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두 개의 그룹을 재창업이라는 하나의 획일적인 재창업 정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 밝힌 신용문제 유무를 넘어, 좀 더 세부적 그룹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실패경험과 재창업기업성과의 관계를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기업가정신, 학습효과, 태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 뿐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의 재창업기업 자료를 보면, 기업이 폐업 이후, 신용문제가 없음을 가정하면, 약 19개월(신용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회복 기간 약 36개월 없이, 재창업준비 기간 약 19개월만 소요) 후에 재창업을 할 수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는 반면, 신용문제가 있는 경우(파산면책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중, 파산면책 경우에는 약 56개월(스트레스 회복기간 약 36개월과 재창업준비기간 약 19개월)에 더하여 신용불량 기록에 의한 금융거래 제한 기간이 최소 5년이 더 소요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경우 상기 약 56개월에 워크아웃 심사 및 분할 납부 기간 2년이 더 소요되고 있다.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신용등급도 약 6등급에서 재창업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거 실패 경험을 통하여 쌓은 자산(노하우, 네트워크, 기술 등)이 수 십 개월이 지나면서 진부화 될 뿐 아니라, 빨리 변화하는 창업생태계에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창업을 하는 것이 재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수의 재창업기업인들은 채무 및 신용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 환경 속에 노출되고 있으며, 폐업을 포함한 스트레스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생계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신용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재창업을 제외하고 재취업 등 다른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실패 원인을 찾고,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아이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신용문제의 미해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업실패와 재창업 사이에 시간의 차이(gap)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면한 생계문제로 인하여 실패원인 분석이 용이치 않게 됨으로, 사업실패 경험이 재창업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극복 할 수 있는 실패는 개인적 및 사회적 자산이 되어, 창업성장을 통한 경제발전과 사회-문화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채무와 신용불량 같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실패경험은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발전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창업-실패-사회문제라는 사회-경제적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재창업 기업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4

년까지 재창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총 685개의 재창업기업 중, 불명확한 데이터를 제거한 후, 384개의 재창업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현재, 재창업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384개의 데이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상기 데이터가 우리나라 전체 재창업 기업의 특성을 대표 할 수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 데이터에 대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패 (폐업)과 재창업 사이를 시간 변수를 활용하여 직/간접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시간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과거의 경험이 진부화가 되는지 실증분석 하는 것도 향후 연구과제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김창봉·이승현(2017). 창업지원제도가 1 인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41-54

이병권, 전인오(2014). 창업동기요인이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213-230

배영임(2014). 재창업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3), 13-22.

하규수(2010).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19(5), 59-74

Audretsch, D., & Mahmood, T.(1995). New Firm Survival: New Results Using a Hazard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7, 97-103.

Bae, Y. I.(2014). Performance Drivers of Entrepreneurial Restar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9 No.3 pp.13-22

Barney, J.(2012). Purchasing, Supply Chain Management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The Relevance of Resource-based Theory.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48, 3-6.

Begley, T., & Body, D.(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79-93.

Callejon, M., & Garcia-Quevedo, J.(2005). Public subsidies to business R&D: do they stimulate private expenditures? *Environment and Planning C-Government and Policy*, 23, 279-293.

Catozzella, A., & M. Vivarelli(2014.) The Catalysing Role of In-House R&D in Fostering Complementarity Among Innovative Inputs. *Industry and Innovation*, 21, 179-196.

Choo, F., & Trotman, K.(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tructure and Judgments for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auditors. *Accounting Review*, 66, 464-485.

Cope, J.(2005). Toward a dynamic learning perspective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 373-397.

Cope, J., Cave, F. & Eccles, S.(2008). The Impact and Outcomes of Venture Failure: An Entrepreneurial Learning Perspective (Summary),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8(Iss. 4), Article 4.

Delmar, F., & Shane, S.(2004). Legitimizing first: organizing activities and the survival of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 385-410.

Dew, N., Read, S., Sarasvathy, S., & Wiltbank, R.(2009). Effectual versus predictive logics in entrepreneurial decision-making: Differences between experts and novi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 287-309.

Dimov, D.(2010). Nascent Entrepreneurs and Venture Emergence: Opportunity Confidence, *Human Capital, and Early Planning*. 47, 1123-1153.

Gabrielsson, J., & Politis, D.(2011). Career motives and entrepreneurial decision-making: examining preferences for causal and effectual logics in the early stage of new ventures. *Small Business Economics*, 36, 281-298.

Gino, F., & Pisano, G.(2011). Why Leaders Don't Learn From Success. *Harvard Business Review*, 89, 68-74.

Gnyawali, D. R., & Fogel, D. S.(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43-43.

Gonzalez, X., Jaumandreu, J., & Pazo, C.(2005). Barriers to innovation and subsidy effectiveness. *Rand Journal of Economics*, 36, 930-950.

Greenberger, D. B. & Sexton, D. L.(1988).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initi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 1-7.

Grilli, L., & Murtinu, S.(2015). New technology-based firms in Europe: market penetration, public venture capital, and timing of investment.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4, 1109-1148.

Ha, K. S.(2010),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rom Business Attitude and Fear on Business Failure, *Korea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19 No.5 pp59-74

Hmieleski, K., & Baron, R.(2009). Entrepreneurs' Optimism and new Venture Performance: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 473-488.

Kim, C. B., & Lee, S. H.(2017). A Study on Influence of Entrepreneur Behavior Characteristics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Entrepreneurial Support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2 No.2 pp.41-54

Kim, I. S., Yang, T., & Chang, H. J.(2015). Determinant of external sourcing for Smes in Korea: analysing the effect of sub-constru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outside technological partnership from th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19, 234-255.

King, A., & Tucci, C.(2002). Incumbent entry into new market niches: The role of experience and managerial choice in the creation of dynamic capabilities.

- Management Science*, 48, 171-186.
-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91-91.
- Lee, B. G., & Jeon, I.O.(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focusing on potential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9 No.6 pp.213-230
- Madsen, P., & Desai, V.(2010). Failing to Learn? The Effects of Failure and Success on Organizational Learning in The Global Orbital Launch Vehicle Indust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3, 451-476.
- McGrath, R.(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 13-30.
- Mcmullan, W., & Vesper, K.(1987). New Ventures and Small Business Innovaton for Economic-Growth. *R&D Management*, 17, 3-13.
- Politis, D., & Gabrielsson, J.(2009). Entrepreneurs` attitudes towards failure: an experiential learning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5(4), 364-383.
- Rojas, F. & Huergo, E.(2016).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nd public support for NTBFs. *Small Business Economics*, 47, 363-382.
- Ronstadt, R.(1988). The Corridor Princip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 31-40.
- Sexton, D. L., & Bowman, N.(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 129-140.
- Shepherd, D.(2004). Educating Entrepreneurship Students About Emotion and Learning From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3, 274-287.
- Shepherd, D., Covin, J., & Kuratko, D.(2009). Project failure from corporate entrepreneurship: Managing the grief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 588-600.
- Shepherd, D. A.(2011). Multilevel entrepreneurship research: Opportunities for studying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Management*, 37(2), 412-420
- Starr, J., & Bygrave, W.(1991).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prior start-up experience: An exploratory study of multiple venture entrepreneurs*. In: N. C. Churchill, W. D. Bygrave, J. G. Covin, D. L. Sexton, D. P. Slevin, K. H. Vesper, and W. E. Wetzel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991*. Wellesley, MA: Babson College, 213-227.
- Stokes, D, & Blackburn, R.(2002). Learning the hard way: the lessons of owner-managers who have closed their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 9(Issue: 1), 17-27.
- Stuart, R., & Abetti, P(1990). Impact of Entrepreneurial and Management Experience on Earl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151-162.
- Ucbasaran, D., Lockett, A. Wright, M., & Westhead, P.(2003). Entrepreneurial founder teams: Factors associated with member entry and exi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 107-127.
- Ucbasaran, D., Westhead, P., Wright, M., & Flores, M.(2010). The natur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business failure and comparative optimis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 541-555.
- Wallsten, S.(2000). The effects of government-industry R&D programs on private R&D: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Rand Journal of Economics*, 31, 82-100.
- West, G., & Noel, T.(2009). The Impact of Knowledge Resources on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7, 1-22.
- Wood, R., Bandura, A., & Bailey, T.(1990). Mechanisms Govern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Complex Decision-making Environmen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6, 181-201.
- Yu, J., & Chen, S.(2016). Gender moderates firms' innovation performance and entrepreneurs' self-efficacy and risk propensit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4, 679-691.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Re-startup Firm's Performance by the Condition of Credit Problems

Kim, In Sue*
Lee, Taek Ku**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ailure experience, re-startup's motivation, government support business and education for re-startup on the performance of re-startup firms after failure. In addition, we analyzed how the above factors affect the performance of re-startup firms by the condition of debt and credit proble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ilure experienc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tartup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credit problem, while re-startup's motivation, government support business and education for re-startu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startup firms' performance. In the re-startup group with the credit problem, the re-startup's motivation and the failure experienc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startup firm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in the group that did not solve the credit problem, the re-startup's motivation and the failure experienc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tartup performance, but the government support business and education for re-startu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startup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re-startups and the determinants of re-startups are different according to credit problems. Second, this study shows that it takes 56 months on average from the close of business to the re-start, and it may take more than 7 years due to the credit problems and bankruptcy.

This suggests the necessity to consider re-startup in the concept of obsolete in consideration of time, when studying the direct/indirect influence of failure experience and re-startup, and establishing policy.

Key words: start-up, failure experience, re-start-up, corporate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credit problems, regression analysis

* First Author,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KAIST Center for Science-based Entrepreneurship, kiminsue@kaist.ac.kr

** Corresponding Author, Director General, Planning & Coordination Office, Daejeon Metropolitan City, taekkulee@korea.kr